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2026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 2(2) 함께하는 국어생활 기술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함께하는 국어생활’ 단원에서는 다른 언어 공동체와의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묻는 문제, 바람직한 소통 태도를 묻는 문제, 특정 언어 공동체의 특징을 묻는 문제, 특정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 지역 방언의 특징과 효과를 묻는 문제, 남북한 언어의 특징과 차이를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언어 공동체의 개념 및 특성과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위한 의사소통 태도를 정리하고, 각 언어 공동체의 특징을 확인하며, 배운 내용을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한국어 강의를 한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잠시 공부하러 왔거나 아예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다.
처음으로 강단에 선 날, 나를 바라보던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동자가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내가 처음 맡은 수업은 초급 한국어 강의였다.
저마다 다른 색색의 눈동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의지로 하나 되어 빛났다.



이들 중 ㉠한국 가요나 드라마가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대중문화나 유명 관광지, 그리고

한국의 10대와 20대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궁금해한다.

한편, ㉡한국인과 결혼하여 우리나라에 사는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의 가족 문화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초급 한국어 강의인 데도 어려운 친족어와 호칭어, 높임 표현에 관해 질문한다.

두 집단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동일하지만 한국어에 관해 궁금해하는 점은 다르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한국에서 대화할 사람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려는 것이 아닐까? 한국 가요를 좋아하는 젊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젊은 세대들과 대화할 상황이 많고, 가족 구성원이 한국인인 외국인들은 한국의 다양한 친족어와 높임 표현을 이해할 상황이 많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지 인식하는 태도는 중요하다. 우리도 한국어로 소통하
[A] 지만 각자 자신이 속한 지역, 세대, 성, 문화가
다양하다. 따라서 상대와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동체들.
우리는 그 속에서 각자 살아간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하지 않은 공동체 모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이다.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소통하려고 다가올 때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자.

나와 소통하려는 상대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준비가 되었는가?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더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와 상대가 속한 공동체는 다를 수 있다.

나와 다른 상대의 모습을 편견 없이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소통을 시작할 수 있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② 현실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 ③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깨달은 바를 주장하고 있다.
- ④ 글의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다른 언어 공동체와의 진정한 소통의 방법을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가 처음 맡은 수업은 초급 한국어 강의다.
- ② 초급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아예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다.
- ③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의 친족어나 높임 표현에 관해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 ④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⑤ 결혼 이민자들과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 궁금해하는 점이 다르다.

3. 윗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르다.
- ② ㉠과 ㉡이 속한 언어 공동체에는 차이가 있다.
- ③ ㉠이 배우는 한국어가 ㉡이 배우는 한국어보다 어렵다.
- ④ ㉠은 같은 세대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은 한국의 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 배우기를 원한다.
- ⑤ ㉠과 ㉡은 각 외국인이 속해 있는 지역, 세대, 성, 문화 등이 다른 것에 따라 나뉜다.

4. [A]를 바탕으로 생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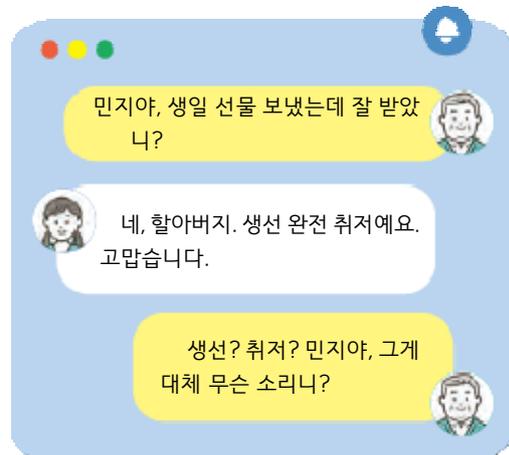
- ① 어른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말과 청소년 세대가 주로 표현과 어휘가 서로 다를 수 있군.
- ② 특정 지역의 사람들끼리 사용하는 말은 그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겠군.
- ③ 상대방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겠군.
- ④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일 수 있으니 존중해야겠군.
- ⑤ 나와 다른 언어 공동체에 속한 사람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겠군.

【5~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



5.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가)는 (㉠)에 따른 표현 방식의 차이를, (나)는 (㉡)에 따른 표현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
①	지역	세대
②	성별	세대
③	직업	지역
④	세대	성별
⑤	지역	직업

6. (가)와 (나)에서 사용한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담화 관습의 사례이다.
- ②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집단 내의 친밀감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 ③ 다른 언어 공동체에 속한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표준어로 고쳐 사용해야 한다.
- ⑤ (가)와 달리 (나)는 언어 공동체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7. (나)의 '민지'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축약된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②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여 함축하여 말하고 있다.
- ③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④ 관용표현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 ⑤ 운율이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8. (나)의 '민지'와 비교하여 <보기>의 '강산'의 말하기 방식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교무실에서]

강산: 선생님, 수행 평가 과제 걸어 왔어요.
담임 선생님: 그래. 고맙다.
강산: 네. 참, 오늘 제 생일이예요.
담임 선생님: 오늘이 생일이니? 축하한다. 친구들한테 축하 많이 받았니?
강산: 그럼요. 윤서가 생일 선물도 줬어요.
담임 선생님: 너희 둘은 정말 친하구나. 뭘 받았니?
강산: 문화 상품권이에요! 안 그래도 읽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선물 받아서 기뻐요.
담임 선생님: 잘됐구나.
강산: 이따 애들이랑 생일 파티도 하려고요.
담임 선생님: 그래.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고, 뒷정리도 잊지 마라.

- 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청자에게 신뢰를 주고 있군.
- ② 말하기 장소를 고려하여 자신의 고민을 전달하고 있군.
- ③ 청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어휘와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군.
- ④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청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군.
- ⑤ 특정 직업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군.

9. <보기>에 사용된 방언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오메, 단풍 들것네"
 장광에 골 붉은 감잎 날아 오아
 누이는 놀란듯이 치어다보며

"오메, 단풍 들것네"
- 김영랑, '오메 단풍 들것네'에서

- ① 시적 상황을 뚜렷하고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
- ② 독자에게 특정 지역의 향토적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 ③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④ 대상의 함축된 의미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⑤ 시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 독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들과 대화할 때 불쾌한 표정을 보였을까 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지역의 언어 표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끼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 언어 공동체의 사람들이 원활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서로의 언어 표현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멘도롱 또똥', '놀멍 놀멍 뽀서', 제주도에서 들었던 아름다운 표현들이 민들레 씨앗의 솜털처럼 하나둘씩 내 마음에 떠오릅니다. 이번 주말은 아름다운 사투리 표현들을 친구들과 찾아봐야겠습니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작년에 제주도를 여행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와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키오스크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얼른 다가가 주문을 대신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는 저에게 "아이고, 아이가 잘도 요망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요망하다"의 뜻은 부정적인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또 어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제주도에 오시느라 폭삭 속았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렇게 늙어 보이시나? 아니면 우리가 속았다는 건가?' 아무튼 제주도 분들의 예의 없는 표현에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이러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크게 웃으시며, "네가 잘못 이해했구나. 제주도에서 '요망지다'라는 표현은 똑똑하고 야무지다는 뜻이야. 그리고 '폭삭 속았수다'라는 표현은 수고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제주도에 오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뜻이지."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혹시나 그분

10. 위와 같은 글을 쓸 때의 유의할 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쓴다.
- ② 운율이 느껴지는 세련된 말을 사용한다.
- ③ 흥미를 위해 사실을 바탕으로 허구성을 더한다.
- ④ 평소에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일상만 소재로 선택한다.
- ⑤ 자신의 주장이 잘 드러나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설득한다.

11. 뒷글을 통해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 ① 장유유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습이다.
- ② 자신의 호의를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해해서는 안 된다.
- ③ 언어 공동체 간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속한 언어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
- ④ 지방의 방언은 표준어에 비해 가치가 떨어진다.
- ⑤ 제주도는 아름다운 섬이므로 가족여행을 가는 것을 추천한다.

12. 다음은 윗글을 쓰기 위하여 글쓴이가 메모한 내용이다.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인상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마무리한다.
- ② 독자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서술하면서 내용을 부드럽게 전달한다.
- ③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한다.
- ④ 비유를 활용하여 참신하게 표현한다.
- ⑤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내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알밤주야.

13.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남한과 북한의 언어는 뿌리와 체계가 다르다.
- ② 남북한 간의 언어는 용어의 활용에 차이가 있다.
- ③ 북한의 언어는 남한의 언어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진다.
- ④ 남한의 언어에 비해 북한의 언어는 표현 방식이 한정되어 있다.
- ⑤ 시간이 흐르면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였다. 지도 교수님이 조리 실습 과목을 수강하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조교가 짜준 조에 편입되어 실습을 했다. 그런데 두 번째 시간부터는 학생들이 모두 다른 조로 가 버려서 나는 그만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학생들이 나와 같은 조에서 실습하기를 꺼렸던 까닭은 나의 미숙한 의사소통 능력 때문이었다. 내가 남한의 음식 용어를 잘못 알아들어서 요리를 엉뚱하게 하면 같은 조원 모두가 실습 점수를 낮게 받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가 오랫동안 살린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도 잘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남한에서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같은 조에서 같은 강의를 듣고 같은 방법으로 요리를 만들어도 다른 음식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나)

북한, 마을 주민들이 이정혁의 집 앞에 음식을 들고 찾아왔다.

옥금: 아, 아유, 참, 밤늦게 미안합니다.

정혁: 예, 무슨 일로?

영애: 전초선 근무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뭐 먹을 게 있겠소? 내가 이 동네 어른으로서 진작에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늦었구만기래.

정혁: 일없습니다.

영애: 사양 말고 받으랴요. 이거 내가 직접 담근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윗글에서는 현실 상황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① 윗글의 ‘그 까닭은 무엇일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한국에서 대화할 사람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려는 것이 아닐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글쓴이가 한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강의한 사례를 바탕으로 깨달은 바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글의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에게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윗글의 ‘공동체 모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나와 소통하려는 상대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준비가 되었는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정답] ②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잠시 공부하러 왔거나 아예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윗글의 ‘내가 처음 맡은 수업은 초급 한국어 강의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윗글의 ‘한편, 한국인과 결혼하여 우리나라에 사는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의 가족 문화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초급 한국어 강의인데도 어려운 친족어와 호칭어, 높임 표현에 관해 질문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윗글의 ‘상대와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윗글의 ‘두 집단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동일하지만 한국어에 관해 궁금해하는 점은 다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정답] ③

㉠은 주로 한국의 대중문화와 관련된 표현을, ㉡은 주로 한국의 가족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배우길 원한다. 따라서 ㉠이 배우는 한국어가 ㉡이 배우는 한국어보다 어려운 것은 아니다.

① ㉠은 대중문화, 유명 관광지, 한국 10, 20대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은 한국의 가족 문화에 관한 표현을 궁금해하므로 적절하다.

②, ⑤ ㉠과 ㉡이 속한 언어 공동체는 각 외국인이 속해 있는 지역, 세대, 성, 문화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다.

④ ㉠은 10대, 20대 등 젊은 층으로, 같은 세대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은 결혼 이민자로, 한국의 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 배우기를 원하므로 적절하다.

4. [정답] ④

비속어는 언어 공동체에 따른 차이와는 무관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 표현이 다를 수 있다.

② 특정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역 방언은 해당 지역 내에서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③ 상대방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문화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공유해야 한다.

⑤ 상대방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특징과 상황을 이해할 때에 비로소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정답] ①

(가)는 지역 방언을 보여 주는 사례이고, (나)는 세대에 따른 표현 방식의 차이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①이다.

②, ③, ④, ⑤는 적절하지 않다.

6. [정답] ⑤

(가)와 (나) 모두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언어 공동체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는 지역 방언, (나)는 세대 방언으로 특정 지역이나 세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담화 관습의 사례이므로 적절하다.

② 각각의 방언은 동일한 언어 공동체 안에서 적절

하게 사용될 때에 각 언어 공동체의 친밀감과 결속력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므로 적절하다.

③ 각 방언이 서로 다른 언어 공동체에 속한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의사소통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와 (나) 모두 특정 언어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므로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7. [정답] ①

(나)에서 민지는 '생선(생일 선물의 줄임말)', '취저(취향 저격의 줄임말)'와 같이 간결하고 압축적인 줄임말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관용표현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운율이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8. [정답] ③

(나)에서 민지는 청자에 대한 고려 없이 줄임말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반면 <보기>에서 강산이는 줄임말을 쓰지 않고,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원활하게 대화를 이어 나가고 있다.

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 않다.

② 말하기 장소를 고려하여 자신의 고민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

④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특정 직업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9. [정답] ②

<보기>의 작품에서 사용된 지역 방언은 향토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독자가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① 지역 방언의 사용이 시적 상황을 뚜렷하고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효과는 없다.

③ 지역 방언의 사용이 대상에 감정을 이입한 것은

아니다.

④ 지역 방언의 사용이 대상의 함축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지역 방언의 사용이 시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10. [정답] ①

윗글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은 바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수필에 해당한다. 이러한 글을 쓸 때에는 진솔한 표현이 중요하다.

② 운율이 느껴지는 세련된 말을 사용하는 것은 서정 갈래이다.

③ 흥미를 위해 사실을 바탕으로 허구성을 더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

④ 수필은 의미 있는 일상적 경험을 소재로 선택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자신의 주장이 잘 드러나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은 주장하는 글이다.

11. [정답] ③

윗글에서는 제주도에서 글쓰기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속한 언어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

① 윗글에서 장유유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② 윗글에서 자신의 호의를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④ 지방의 방언은 아름다운 표현으로, 표준어와 가치의 우위를 가릴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윗글에서 제주도는 아름다운 섬이므로 가족여행을 가는 것을 추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12. [정답] ⑤

윗글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아버지의 설명이 인용되어 있으나 이를 전문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끼게 된다.'에서 인상적인 표현을 활용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작년에 제주도를 여행했을 때의 일입니다.'와 같은 부분에서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경어체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제주도의 식당에서 만난 아주머니와의 일화에서 구체적 예시를 들고 있다.
- ④ '민들레 씨앗의 솜털처럼'과 같은 표현에서 비유적 표현 등을 참신하게 사용하고 있다.

13. 정답 ②

(가)에서는 새터민이 남한의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경험하게 된 어려움이 잘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① 남한과 북한의 언어는 뿌리와 체계가 다르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③ (가)에서는 남북한 언어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북한의 언어가 남한의 언어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남한의 언어에 비해 북한의 언어가 표현 방식이 한정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⑤ 시간이 흐를수록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는 커지게 될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